



3면

‘더 큰 혁신, 더 큰 전북’

전주매일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음 7월 24일) 제28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내 대표 해양관광거점 실현 큰 계기”

송하진 도지사, 노을대교 기재부 일괄예타 통과 관련

“20년의 기다림·도전의 시간, 역동적 발전 역사로 관광형 대교라는 지역발전 토대·삶의 질 향상 기회 태안반도부터 목포까지 잇는 관광권역 조성 기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0일 “노을대교의 일괄예타 통과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거점 조성의 꿈을 실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6면>

송 지사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노을대교가 일괄예타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20년의 기다림과 도전의 시간을 이제 역동적인 발전의 역사로 새롭게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사와 노을대교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2001년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할 당시, 부안과 고창 주민의 이동 강화를 위해 대교 건설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을대교 건설에 대

한 송 지사의 의지와 관심은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성 논리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예타 심의를 앞두고 전북도가 도로 여건이 양호한 육지를 사업구간에서 빼는 ‘육지부 제척’이라는 강수를 낸 것도 송 지사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방증한 사례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송 지사는 새만금 미대수요를 반영한 이동량 조사를 지시해 경제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응 전략을 주도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과 공조를 펼치는 등 이번 노을대교 건설 예타통과에 총력을 쏟았다는 전언이다.

송하진 지사는 “2001년 국도 지정, 2005년 기본설계 완료, 18대 대선공약 반영에도 터덕했던 노을대교 건설이 마침내 확정됐다”며 “지난 20년간의 도전에도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시던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



오로 배수의 진을 치고 통과에 전력을 다했다”며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윤준병, 김운덕, 이원택, 정운천 국회의원과 국토부, 기재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송 지사는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부안과 고창은 관광형 대교라는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갖출 수 있고 주민들은 접근성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얻게 있을 것”이며, “앞으로 충남 태안반도와 새만금의 고군산군도, 부안의 변산국립공원, 고창의 선운산과 갯벌, 그리고 전남 목포까지 연결되는 초광역 관광권역 조성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9월 중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며 “노을대교를 천사대교, 가거대교와 견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전북은행 ‘메타버스 열라이언스’ 가입

지역금융으로서의 최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지역금융 최초로 ‘메타버스 열라이언스’ 회원사로 가입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지역발전 금융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메타버스 열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민간 중심의 협력체계로서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LG CNS, 네이버 클라우드 등 약 300여 개의 메타버스 유관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 중인 일명 ‘K-메타버스 연합군’이다. 30일 현재 지방은행은 전북은행이 유일하다.

전북은행은 ‘메타버스 열라이언스’ 내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한 지역 기반 회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구현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방역수칙 무시 한밤 중 음주행위 ‘꼼짝마’

전북도, 특사경 중심 합동단속반 편성 도청 앞 광장 등 집중점검 행정명령 위반 13명에 과태료... 도 “4단계 종료시까지 단속할 것”

전북도가 도청 앞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과 공원, 숙박업소 등을 합동 단속해 야외 공원 내 취식, 음주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도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4개 합동 단속반 16명을 편성해 도청 앞 광장, 공원, 숙박시설 등을 집중 점검, 13명의 행정명령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서, 전주시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2주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공원과 광장 등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취식 및 음주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른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현장단속에서 음주와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 준수율이 버젓이 떨어지는 도청 앞 비보이 광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여러 명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배달시켜 늦은 시간까지 음식과 술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었고, 단속반이 제지하자 일부는 심한 욕설

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먹던 술과 음식을 버려놓는 등 도망가는 시늉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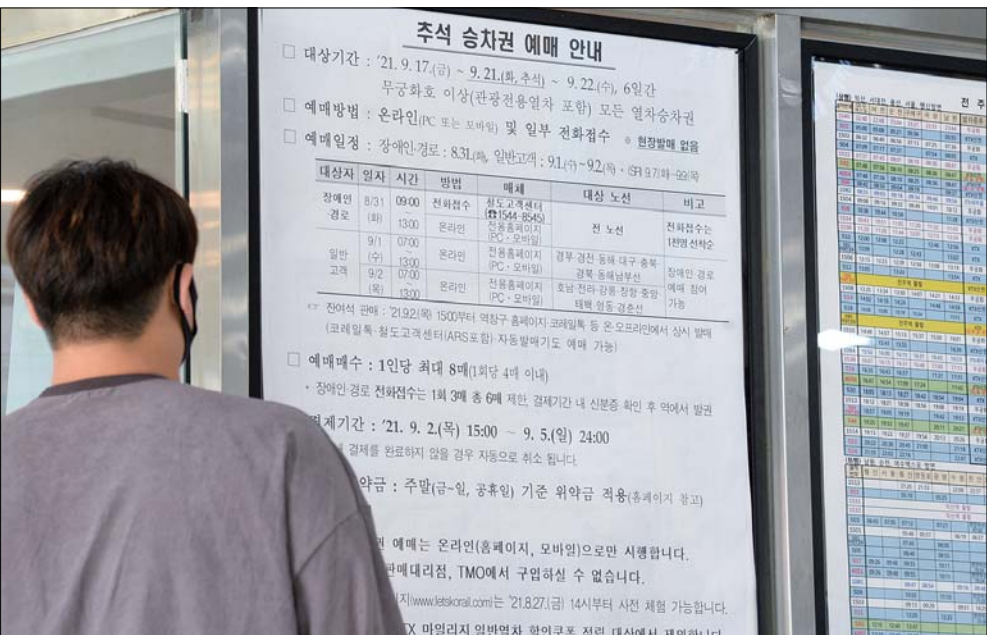
또한 사람들이 취했는지 가까이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보였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에서 방역 수칙 준수를 지키고 있으나 일부 방역수칙 위반자들로 인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30일부터 4단계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합동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임시사무실을 설치,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청 앞 숙박업소 15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는 손님들이 1/3 정도 밖에 이용하지 않으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추석 열차표 예매, 전화와 온라인으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약 3주 앞둔 30일 전주역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추석 열차표 예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적용해 전화와 온라인 예매로 사전 판매되며 31일은 장애인 및 경로 대상자가 전 노선을 예매, 일반 시민들은 10월 1일 경부선 10월 2일 호남선을 예매 할 수 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부안, 매력에 배바지다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상사화 전경